

## ‘판소리 모두의 울림’...광주비엔날레 86일 대장정

창설 30주년, 관람객 80만명 목표  
본관·양림동·파빌리온 3개축 운영  
‘갈등의 국경·반이민 장벽’ 등 표현  
“광주, 아시아 대표 문화도시 성장”



창설 30주년에 열리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가 세계 미술인들의 환호와 기대 속에 지난 7일 개막했다.

주제 ‘판소리’를 은유로 동시대 미술 현장의 윤곽을 드러낸 전시는 12월 1일까지 86일간 이어지며 최대 관람객 80만명을 목표로 광주 곳곳에서 다양한 특별전과 함께 펼쳐진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아트씬은 크게 세 축으로 나뉜다. 본관에서 열리는 본 전시 ‘판소리, 모두의 울림(Pansori, a soundscape of the 21st century)’과 장외섹션 양림동 전시 ‘소리숲’, 광주 곳곳 문화기관·미술관 등에 조성한 31개 파빌리온(국가관)으로 구성된다. 여러 미술관, 갤러리들도 자체적으로 특별전을 기획해 다양한 미술의 현장을 구현한다.

이번 전시를 관통하는 주제는 ‘판소리’다.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은 ‘판’(공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8일 휴일을 맞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에서 기후변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구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표현한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판소리, 모두의 울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비엔날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광주 전역에서 오는 12월 1일까지 열린다.

간)과 ‘소리’의 내러티브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문제를 탐구하고자 했다. 마당이라는 공공의 장소를 뜻하는 ‘판’에서 타자의 소리까지 담아낸다는 점이 광

주비엔날레 지향점 ‘광주정신’과 일치한다. 실제 참여작가들은 갈등의 국경, 반이민 장벽, 탈식민, 기후위기, 사막화, 동식물 생태계 파괴, 페미니즘, 성소수자 인권

등 다양한 동시대 현안을 미술작품으로 가져온다.

특히 이러한 이슈들을 다양한 종들이 내는 일종의 ‘소리’나 ‘울림’으로 인식해

전시 풍경을 구현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전시장 곳곳은 소리가 주요한 모티브로 작동하고 있다. 풍경이 곧 사운드스케이프인 만큼, 전시는 음악과 시각적 형식이 연결돼 전개된다. 예술가들은 판소리 소리꾼으로 변모해 세대, 문화, 나이, 성별, 지역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소리를 시각화시키며 위기에 처한 지구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해 이야기한다.

본전시는 장외섹션 양림동 ‘소리숲’으로 이어진다. 양림문화센터, 포도나무 아트스페이스, 한부철 갤러리, 한희원 미술관, 양림살롱, 옛 파출소, 빈집,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등 8곳이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며 소리 프로젝트와 관객 참여에 기반한 다양한 협업 작업이 펼쳐진다.

특히 양림동 주민, 예술가, 기획자들이 광주비엔날레 기간에 발맞춰 기획한 제3회 양림골목비엔날레, 이곳에 조성된 파빌리온5곳(국가관 오스트리아·캐나다·덴마크·폴란드·스페인)과 어우러져 마을 전체가 미술관으로 재탄생한다. 일본 식민지 시대 저항의 역사, 근대화 이후 기록의 역사가 깃든 근대역사문화마을 ‘양림동’이 다시 한번 광주에서 미술 중심지로 재탄생하는 장관이 펼쳐진다. **▶ 3면에 계속**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 광주시, ‘통합공항 무안 이전’ 전방위 활동 나선다

광주시가 ‘민·군 통합공항 이전’ 해결을 위해 전방위 활동에 나섰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민주당 광주시당 주최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과 박군택·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민형배 국회의원 등이 참석, 민군 통합공항 관련 광

주·전남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 1조원 규모의 지원 적절성, 군공항 이전 확정 전 민간공항 이전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이날 강 시장은 “80만평의 현재 무안공항에서 1.9km 떨어져 있는 곳에 2개의 활주로가 들어서면 총 500만평이 넘는 공항이 완성된다”며 “이같은 대형공항이 들어서면 공항도시가 하나 생기는 것이다. 우

리는 지역경제 발전과 미래를 위해 이것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입법권의 문제로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현재 사업방식인 기부 대 양여와 이에 더해 지난해 통과한 특별법으로도 이전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1조원 규모의 지원은 광주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이주,

국회의원 간담회서 협력방안 논의 강 시장, 민주당에 당론 채택 요청 열린대화방 등 무안군민 직접 소통

소음, 정신적 보상 등은 법에 의해 지원되고, 광주시의 1조원대 지원은 법적 보상과는 별도의 위로금 형태의 지원금이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군공항 이전 확정 전 민간공항 이전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전남도와 공동발표한 합의문에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사·도가 협의해 광주 민간공항을 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

다’고 명시돼 있다.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시장은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참석 의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의 협의를 이끌기 위해 당 차원의 군공항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광주시는 무안군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무안군 망운면에 ‘열린대화방’을 개설했다. **노병하 기자**

A soundscape of The 21st Century 모두의 울림  
PANSORI 판소리  
2024.9.7. - 12.1.  
15th Gwangju Biennale 제15회 광주비엔날레  
Venues Gwangju Biennale Exhibition Hall and select location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Hosts Gwangju Biennale Foundation, Gwangju Metropolitan City 장소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 광주광역시 일원 주최·주관 (재)광주비엔날레, 광주광역시